

보도자료

배포일 : 2023.1.27(금)



□ 국민소통위원회 : ☎ 02-2630-0050 ☎ 02-2630-7094 □ 담당 : 이주형 부장

민주당, TV조선 보도 방심위 제소

- TV조선의 노골적 '이재명 대표 폄훼보도' 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재명 당 대표 폄훼 뉴스를 보도한 <TV조선> 9시 뉴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TV조선> 9시 뉴스는 1월 16일 자 ‘[단독] 비공개 정영학 녹취록 보나... “이재명에게 돈 준 거 수사 못 한다”’ 보도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이재명 대표 측에 건넨 돈에 대해 A씨와 B씨가 정영학 회계사를 안심시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재명에게 돈 줬다는 의혹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 되면 수사 못한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검찰) 조직 날라간다.”, “김만배씨가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돈을 가져갔다. 그 돈이 이재명 측 선거자금이란 증거가 많다” 등의 녹취록 일부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TV조선이 보도한 녹취록은 “정영학과 불특정 인물과의 무의미한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억측에 의해 왜곡된 발언”이며, “이 녹취록은 대장동 재판 관련 법원의 증거기록에도 없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출두를 앞두고 오직 이재명 대표를 폄훼하기 위해 신빙성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며 <TV조선> 9시 뉴스를 방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월 20일에도 <TV조선> 9시 뉴스의 팩트체크 없는 ‘가짜 뉴스 받아쓰기’ 보도 2건에 대해 방송위에 제소하며 가짜 뉴스 보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 관련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